

국민 편에 선 검사 금태섭

Special Interview

국민 편에 선 검사,
금태섭을 말하다

강서 아이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르고 골랐습니다!

〈헌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주인공
개혁과 소신의 도시, 강서와 닮은 사람

대한민국 큰 얼굴들이 인정한 용기와 진심, 그리고 실력
박원순 대변인·야권의 전략통·더민주 혁신의 상징

“아이들이 행복해야 강서가 행복합니다!”_4대 핵심 비전

2



대한민국이 금태섭을 추천합니다

서울대 교수 조국이
금태섭의 용기를 추천합니다.

소설가 조정래가
금태섭의 진실함을 추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금태섭의 깨끗함을 추천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도
금태섭의 능력을 인정해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2014. 5.)

2 강서의 새로운 미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금태섭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2



대한민국에 이런 검사가!

|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주인공
| 정의를 지켰던 검사,
소신과 개혁의 도시 강서의 국회의원으로!

국민 편에 선 검사, 정의의 검사, 검사 같지 않은 검사... 금태섭을 수식하는 말은 많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피의자용 가이드를 한겨레신문에 기고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독자·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검찰조직과 갈등을 빚었다. 금태섭은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령의 측근 등 거악을 파헤치는 대검 중수부 전담팀에 뽑힐 만큼 조직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검사였다. 그런 금태섭이 이 글로 인해 끝내 법복을 벗었다. '금태섭'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던 그때의 이야기부터 들여보자.



국민이 열광한 용기와 신념

“검사는 공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금태섭이 신문에 글을 쓴 이유는 간단했다. “그러나 제가 12년 몸담았던 검찰은 기득권을 대변하고 인권은 외면했습니다. 답답함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글을 썼습니다. 대단한 비밀을 밝힌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알린 글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의 주제는 2가지였다. 첫째,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둘째,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약자, 따라서 전문가인 검사나 경찰 앞에서 설부터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국민의 반응은 뜨거웠다. 엄청난 수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연재 끝나면 금 검사님도 끝날 듯...”과 같은 우려도 많았다. 기사는 애초 10편 시리즈로 기획되었지만 검찰조직의 반발로 1회에 그쳤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정도로 검찰이 팍막한 조직인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미련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기득권, 줄서지 마라! 부조리, 눈감지 마라!”

할 말하는 금태섭의 강단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한겨레신문 기고 전, 그는 취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법무부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를 보며 국민은 박수를 보냈지만, 조직은 “평검사 주제에 어디에다대고 장관에게!”의 반응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부전자전’이라고 말한다. 금태섭의 부친은 2003년 작고한故금병훈 변호사다. 1973년까지 판사였던 그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풀어줘 협박을 받고, 1차 사법파동 때 평판사 대표격으로 나선 이유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장수길 변호사 등과 함께 법복을 벗은 ‘개혁인사’다. “아버지는 삶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면 당당하게!’ 법무부장관을 공개 비판할 때도, 국민 편에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쓸 때도, 아버지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개혁의 도시 강서와 닮은 사람, 금태섭

그가 강서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강서의 개혁성이다. “강서는 저의 용기와 신념을 인정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강서구민의 품에서 부조리, 불평등과 맞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금태섭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금태섭은 그 맨 앞자리에 서겠다 다짐한다.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세상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용기 있던 젊은 검사의 바람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금태섭 검사의 「수사받는 법」 기고가 지난달 한 일간지를 통해 나간 후 독자·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 금 검사의 문체의식은 여전히 유효 (...)

- ① 중앙일보 2006. 10. 31 중

기자를 부끄럽게 만든 검사 (...) 금태섭 검사처럼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각오하고 (...) 글을 쓸 용기가 내게 있을까. 금태섭 검사의 용기가 부럽다.

- 한겨레 2006. 9. 22 중

새로운 정치 변화의 아이콘으로!

|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거치고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부각
| 변화가 필요한 곳엔 늘 그가 있었다

9년 전 그가 검찰을 떠날 때 정치의 길을 생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운명처럼 그 길에 들어섰다. 이 땅의 부조리를 걷어내는 일, 그 시작이 정치임을 깨달아가던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그에게 '후보 멘토단' 합류를 제안한다. 정치인 금태섭의 삶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도,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2011년 선거, 멘토로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금태섭의 신념과 열정이 저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금태섭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며)



“금태섭을 불러와라!”

2007년 검찰을 떠난 후 그가 택한 길은 국민과의 소통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고, MBC 라디오 ‘금태섭의 생활법률’, KBS 2TV ‘의뢰인K’ 등 각종 방송을 진행했다. 신문에 활발히 칼럼을 쓰고, 인기 강사로 전국을 누볐으며 〈학신의 함정〉, 〈디케의 눈〉 등 4권의 책도 썼다. 저서는 베스트셀러로, 고등학생 눈높이로 널리 알려졌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그의 새로움과 개혁성을 눈여겨본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그를 불렀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박원순 후보는 저에게 낯은 정치를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금태섭은 박원순과 함께 새로운 정치와 서울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새로운 정치, 반듯이 걸어오다

그가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캠페인 전략과 메시지를 도맡으면서 부터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낯은 정치에 지친 국민의 열망을 담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었다. “결국 실패했지만, 새로운 정치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바람을 담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금태섭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도전을 이어갔다.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혁신하는 야당의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분당의 위기, 당이 흔들릴 때도 더불어민주당을 굳건히 지켰다. 현재는 더민주의 혁신기구인 뉴파티위원회 위원과 총선 전략기구인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는 야당이 되기 위한 뼈를 깎는 혁신, 그 중심에 금태섭이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여야가 서로 경쟁하며 내놓는 공약과 정책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선진국에서는 여야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 야당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 2015년 금태섭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中

변화와 미래를 향한 강서의 선택!

이제 그는 강서에서 한국 정치의 변화를 꿈꾼다. 서울의 미래 상징인 강서에서 정치의 미래를 열겠다는 그의 당찬 출사표...

“강서는 어제까지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의 강서는 서울의 왼쪽에서 박동하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마곡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가 태동하는 미래의 상징, 강서는 이제 낡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강서의 미래를 위해, 또 야권의 승리를 위해 금태섭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이들 웃음꽃 강서에 가득 피도록!

| 아이들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강서의 행복으로 번져

| 아이 편하고 부모 행복한 교육 · 보육 · 문화 · 안전 4대 비전

금태섭이 그리는 강서의 미래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다. “아이들의 행복이 곧 강서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 보육 · 문화 · 안전 정책은 사실 부모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편하면 어른들도 편합니다. 여성이 안전하면 남성도 안전합니다. 좋은 학교 많고, 아이 맡길 곳 많고, 문화가 풍요롭고 다니기 안전한 동네가 좋은 동네이고, 또 자랑스런 동네입니다.”

‘우리 아이 어디가도 기죽지 않았으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금태섭은 강서에서 수많은 부모들을 만났다. “갓난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까지, 그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우리 아이와 계속 살 수 있는 강서’였습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강서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강서의 아이들이 어디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금태섭 자신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공감아 컸다.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은 현재 화곡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강서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이제 강서의 학부모로서 교육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학원 덜 가도, 전학 안가도 강서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네트워크와 정책능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강서 아이들을 키운다! 〈강서 청소년멘토 드림팀〉 출범



금태섭은 우선 아이들의 꿈을 키울 실질적 사업을 기획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서 청소년 멘토 드림팀〉. “소설가 심윤경, 신경정신과 하지현, 영화감독 변영주 등 각 분야 명사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만들 겁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연도 하고, 아이들과 1:1로 상담도 하면서 진로·진학·직업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강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진학 진로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전문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강서형 칸 아카데미〉 운영, 학업에서 창업까지 멘토단이 함께하는 〈청소년 창의 캠퍼스〉 건립을 통해 강서 아이들의 꿈과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문제를 풀면 부모의 큰 걱정을 덜죠”

강서구의 출산율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다. 미취학아동도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보육시설 수는 하위권. 이에 대한 금태섭의 해법은 ‘함께 였다’. “어린이집,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나름의 제도와 시설은 있지만 양도 질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한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서의 사람들과 강서의 자연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보육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마곡 등 강서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기업들도 우리 아이 키우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양한 시간대별 보육시설〉 운영을 약속했다.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공공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카페 등 유흥공간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는 브릿지카페 등으로 엄마들의 아이돌봄 걱정을 덜겠다는 것.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숲유치원〉 설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우장산, 봉제산, 수명산이 둘러싼 강서는 숲의 도시이다. 금태섭은 자연을 이용한 〈숲유치원〉을 설치, 아이들이 뛰어놀며 몸도 건강해지고, 자연 속에서 공부도 하게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선물 5가지



1 온가족이 함께 자연을 배우는 <키즈팜>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가꾸고 거두는 가족체험농장이다. 농사를 통해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2 놀면서 공부하는 <상상 도서관>

애니메이션과 연극 상영, 레고블럭 교실 등 다양한 문화 체험 콘텐츠와 양천구 음악도서관, 의정부 과학도서관, 파주 '지혜의 숲'과 같은 특화된 신개념 도서관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른들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3 가족과 함께 쉬는 <강서 가족의 숲>

강서에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 이를 위해 금태섭은 유아 풀이 있는 수영장, 어린이야구장 등 특화된 체육공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4 좋은 엄마, 아빠를 위한 <마더센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부모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여성과 가족, 이웃공동체, 마을기업까지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허브센터이다.

5 쌈지돈도 벌고 손주들과도 함께 하는 <이야기보따리>

돌봄과 나눔의 어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강서의 어른들이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교사, 교통지도 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강서안심마을 프로젝트

아이가 편하고 안전하면
엄마도 할머니도 편하고 안전합니다

다니다기 편하고 전선이 정리된 쾌적한 골목

거리풍경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 지중화사업 실시
가판대, 표지판, 볼라드 등 도로의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엄마가 안심하는 안전한 등하곳길

자투리(쌔지)공원, 화분 등으로 '안심 Zone' 설치,
학교앞 낮은 신호등,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 설치와 확대

여성 안심하우스

고화질 CCTV와 LED 가로등·보안등 확충
안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 도입
치안시설이 없는 지역 파출소·지구대 설치

앞아가는 편한 길

출퇴근길과 통학길 버스노선 정비, 신호 정비를 통한
교통량 분산으로 통근길 스트레스 줄이기

차 세우기 편한 마을

학교, 종교시설 등의 나눔주차장 확대,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 및 강서구민에게 할인혜택 추진



강서구

박원순 시장과 함께 5가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1 강서의 가치를 올리는 '고도제한 완화' 부터 해내겠습니다.
- 2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부권 광역철도 사업(부천원종~화곡~홍대입구)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2호선 신정지선(화곡~까치산역)연결 사업, 최대한 앞장서겠습니다.
- 3 제물포로 지하화, 상부에 자연·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 4 화곡유통단지를 유통산업단지로, 강서경제에 활력을!
- 5 과밀학급·학군배정 문제, 박원순 시장·조희연 교육감·금태섭이 함께 풀겠습니다.

강서의 미래를 생각해도, 야권의 승리를 생각해도, 결론은 금태섭입니다!

금태섭(琴泰燮).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초·배재중·여의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어릴 때 꿈은 탐정이

였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임을 알고 탐정과



가장 비슷한 검사가 되기로 맘먹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울산지검, 인천지검, 대검연구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그사이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석사(2000. 8~2001. 5)를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금태섭이란 이름을 전국에 알린 것은 2006년.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해 '국민의 편에 선 검사', '용감한 검사'라는 뜨거운 찬사를 받았지만 검찰조직에서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하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MBC 라디오 '금태섭의 생활법률', KBS 2TV '의뢰인K' 등 각종 방송의 진행자, 칼럼니스트, 인기 강연자, 그리고 <확신의 함정>, <디케의 눈> 등 4권의 책을 쓴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늙은 정치 좀 바꿔보자!"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권유로 그의 멘토단에

참여하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이후 새정치 신희를 일으킨 안철수 대선후보의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과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으로



정치 혁신에 도전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그의 도전은 현재 더민주의 새 인물을 찾는 인재영입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당의 혁신을 이끄는 뉴파티위원회 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편에 선 검사
금태섭

2



강서의
국군장병 여러분께!

제 큰 아들도 7월 14일에 입대합니다. 여러분의 후임이 되는 겁니다. 제대의 그 날까지 몸 건강 하시길! 여러분은 부모님의 희망이고 대한민국 의 내일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65-1 강서힐스테이트 제상가동 3층 301호 02)2698-2256



금태섭



gsgold2001@gmail.com